

## 가족 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 찬 린\* · 이 형 실\*\*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

##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Seo, Chan Ran\* · Lee, Hyong Sil\*\*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55 students of middle school who reside in Seoul and 791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were not found. Second, depression, mother's monitoring and father's parenting behavior were found to have effect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Particularly, mal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were influenced by depression and father's parenting behavior. Femal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were influenced by depression, father's monitoring, and mother's monitoring.

주제어(Key Words) : 청소년 문제행동(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자아존중감(self-esteem), 우울(depression), 부모 감독(parent's monitoring), 부모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

## I. 서 론

### 1. 문제 제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이 시기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 사회적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요구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김운정, 1999), 심한 긴장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9). 이러한 내적 갈등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남현미, 1999). 또한 현재 우리사회는 산업화, 정보화에 의한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이혼율 증가, 가족 해체, 가족원 소외 및 무관심, 가정 폭력과 같은 가족 문제 및 사회적 병리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특성이 성인 못지않은 흉악성과 폭력성 및 조직성을 드러내고 있고 점차 상습화 되고 있으며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준호·김은경, 1995).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요인은 청소년 개인이 속한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 개인이 속한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을 보면,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일차적인 집단으로 가족이 주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매우 크다(남현미, 1999). 즉, 청소년의 문제행동 요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족 환경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요인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노성호, 1986; Epps, 1967)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거나, 또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서 비롯되는 가족 문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류층 이상의 가정과 양친 가족의 청소년도 문제행동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가족의 심리적 결손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김윤희, 1989; 배문조·전귀연, 2002;

Warr, 1993), 부모의 감독(김준호·김순형, 1996; 백연화, 1998; Ary & Duncan, 1999; Barnes & Farrell, 1992; Beam, et al, 2002;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부부 갈등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양돈규, 1997; Patterson, 1982; Siegel & Senna, 1994) 등의 연구들이 그것인데,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 가족 구성원 중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변화적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구조와 해결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가족의 심리적 기류의 중심은 부모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심리적으로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는 시기(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89)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 심리요인 또한 매우 중요하다. 유한규(1997), 조아미와 권두승(1998), 조정문(1985), Rosenberg(197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김운정(1999), 김정원(1992), Beam과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대체로 정서적 불안상태에서 유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행동 청소년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조정문, 1984).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김준호·김순형, 1996; 나철·이길홍·민병근, 1984; 배문조·전귀연, 2002; Ary & Duncan, 1999; Beam, et al, 2002) 남자청소년(조윤정, 2000) 혹은 여자청소년(김준호·김은경, 1995; 이춘화·윤옥경, 2004; 정유미, 1997)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행동과 원인을 분석하였고,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비교 분석에 있어서도 남녀 청소년의 차이에 역점을 두고 영향요인을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감독, 부부갈등과 개인 심리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 1)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2) 성별에 따라 가족 환경 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부부 갈등)과 개인 심리 요인(자아존중감,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 3)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선행 연구의 고찰

### 1. 청소년의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가족이나 학교, 기타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김경화, 1989). 즉,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청소년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일탈 및 범죄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자살, 약물 오·남용, 유해미디어 중독, 유해시설 접촉과 같은 비사회적 행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김진화 외, 2002).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준을 위반하는 일탈행동과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그리고 자신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행동 및 심리적인 부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며,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김은정, 1999; 김준호·김은경, 1995; 이종원의, 2002). 그러나 최근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청소년백서, 2004),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이준화·윤옥경, 2004)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 2. 가족 환경 요인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 1)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애정적 행동은 초기 청소년기의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 통제적 역할을 한다(Jang, 1999). Warr(199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애정적인 행동이 청소년기 초기에 문제행동 청소년과 어울리는 것을 억제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철과 이길홍 그리고 민병근(1984)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 행동이나 자녀에 대한 애정 결핍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가 좋고 자녀가 부모에게 애착을 가질 때 청소년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반사회적 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1989). 또한 김인자(199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문제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수용적일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반면에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부모의 감독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나 가족 이외의 다양한 환경을 접촉하고 또래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Ary와 Duncan(1999)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관계가 낮은 수준일 때, 부모의 감독이 불충분할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nes와 Farrell(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음주 행위 및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제지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행방과 자녀의 또래관

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역할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때, 즉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Beam과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제지 및 감독이 또래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청소년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김순형, 1996; 백연화, 1998). 또한 문제행동 청소년의 가정을 보면 문제행동 청소년의 부모는 대개 자녀의 특성 및 심리적 상태, 자녀의 행동, 친구관계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녀를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진·박성수, 19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문제행동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녀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행동의 요인으로서 부모의 감독은 어떠한 요인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3) 부부 갈등

가족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부부 관계이다. 부부는 가족의 설계자임과 동시에 가족 내 다른 체계의 통솔자로서 가정의 분위기 형성과 관계형성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의 모체가 되기도 한다(김선미, 1995). Siegel과 Senna(1994)의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 정도가 심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사회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규(1997)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갈등 정도가 심각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감소하고, 자녀의 우울 수준 및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연화(1999)의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않지만 부부 갈등이 심각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줄어들고 자녀의 관리감독에 소홀하게 되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적대감이 늘어나고 부모와의 대화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

킴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 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개인 심리 요인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는 자신을 좋은 인격자로 인식하여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 즉,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이들은 부정적 자아상으로 인해 열등감을 호소하거나 이러한 열등감을 위장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Rosenberg, 1978). Mann(1981)의 연구와 유한규(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보다 불안 성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운정(2000), 조아미와 권두승(1998), 조정문(198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 2) 우울

우울은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울적한 기분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의 자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사회적 행동을 이끌어 더 깊은 우울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게 한다(정옥분, 1998). 김현수와 김현실(1997)의 연구와 배문조와 권귀연(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년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정(1999)의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성, 성관계, 책임 회피성, 도벽성, 허위성, 학업 불성실성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민정과 최보가(2004)의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takallio와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폭력성과 상승적인 문제행동과도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우울은 청소년기의 부적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울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 1. 측정 도구

##### 1)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윤영(2002)이 구성한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윤영(2002)의 질문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각 유형별로 10문항으로 구성,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대 유형만을 사용하였고, 10문항 중 또래관계를 통하거나 가족관계 속에서의 부모의 행동이 아닌 부모와 자녀의 직접적 관계에서의 행동을 묻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감독

부모의 감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준호·김은경(1995)의 척도와, 남현미(1999)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감독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자녀가 외출했을 시 누구와 어디에 있고 언제 돌아오는지를 부모가 알고 있는가, 늦은 귀가 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를 알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고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3) 부부 갈등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ych(1992)의 CPIC(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 번안한 부모 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에 의해 추출된 문항들 중 갈등의 특성에 해당되는 문항에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갈등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4)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78)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문항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5) 우울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B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의 CES-D의 20문항 중 긍정적 문항과 타인에 의한 기분, 평소 행동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개인의 내적 기분을 묻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고 청소년 자신 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6) 청소년의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정유미(1997)의 척도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으나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른 3가지 유형은 배제하였다. 이는 문제행동의 심각성과 경 중을 구분하는 경계가 분명치 않고 모호한 것에 의함이다. 또한 나칠, 이길홍 그리고 민병근(1984)의 척도 내용을 참

고하였고 정유미(1997)의 척도에는 없는 문제 내용을 추가 하여 구성하였다. 즉, 청소년의 문제행동 척도는 반항, 욕설, 음란물 관람, 음주, 부정행위(کن닝), 도박, 이성과 신체접촉, 흡연, 폭력서클 가입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준을 위반하는 일탈행동과 절도, 패싸움 및 폭행, 환각제 사용 등 의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그리고 홀로지내거나 한밤중 에 배회하는 청소년의 심리적인 부적응에 관한 총 22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에 대한 반응범주 는 「경험이 전혀 없다」에 0점, 「1~2번의 경험」에 1점, 「3~4번의 경험」에 2점, 「5~6번의 경험」에 3점, 「6번 이상 의 경험」에 4점을 부여하였고 최저 0점에서 최고 120점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2.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일반 중학교에 재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791\*)

특성	구분	n(%)	특성	구분	n(%)
성 별	남학생	438(55.4)	연 령	13 세	6(0.8)
	여학생	353(44.6)		14 세	73(9.2)
아 버 지 연 령	35세 이하	0(0.0)		15 세	428(54.1)
	36 - 40세	36(4.8)		16 세	284(35.9)
	41 - 45세	344(46.0)	어 머 니 연 령	35세 이하	5(0.7)
	46 - 50세	312(41.7)		36 - 40세	183(24.5)
	51 - 55세	47(6.3)		41 - 45세	425(56.8)
	56 - 60세	8(1.1)		46 - 50세	122(16.3)
	60세 이상	1(0.1)		51 - 55세	11(1.5)
아 버 지 학 력	무학 및 초졸	12(1.6)	56 - 60세	2(0.3)	
	중졸	15(2.0)	60세 이상	0(0.0)	
	고졸	238(31.2)	어 머 니 학 력	무학 및 초졸	9(1.2)
	전문대졸	53(6.9)		중졸	30(3.9)
	대졸	267(35.0)		고졸	304(39.9)
	대학원 이상	178(23.3)		전문대졸	44(5.8)
아 버 지 직 업	무직	48(6.2)		대졸	272(35.7)
	근로자	42(5.5)		대학원 이상	102(13.4)
	숙련공	63(8.2)	어 머 니 직 업	무직	432(56.1)
	판매직	148(19.2)		근로자	26(3.4)
	사무직	274(35.6)		숙련공	8(1.0)
	관리직	117(15.2)		판매직	122(15.8)
	전문직	78(10.1)		사무직	140(18.2)
		관리직		16(2.1)	
		전문직		26(3.4)	

\* 변수마다 총 응답자수에는 무응답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학 중인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변화적 시기에 적응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제외한 2·3학년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04년 12월 15일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남녀공학) 2학년 2학급의 7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 사이에 서울시의 9개 구에서 총 12개교를 선정하여 남녀 청소년 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기재 된 64부를 뺀 나머지 791부(남학생 438명, 여학생 35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담임교사의 지도 하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2>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전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문 제 행 동	774	33.44	9.36	428	33.30	9.52	346	33.61	9.17	-45

\*p < .05 \*\*p < .01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제행동 관련요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

남녀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2>와 같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비교해 보면, 문제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정도에

서 남녀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김혜영, 2000; 남현미, 1999)와 일치한다. 또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문제행동에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Liu & Kaplan 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고정자, 2003; 김선미, 1995; 김윤정, 1999; 김준호·김은경, 1995; 이종원 외, 2002)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성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2. 성별에 따른 가족 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가족 환경 요인의 차이

가족 환경 요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3>과 같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남자 청소년은 평균 22.29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22.63점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남자 청소년은 평균 23.75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24.2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감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감독에서 남자 청소년은 평균 14.02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14.24점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감독에서 남자 청소년은 평균 17.05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18.57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감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감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5.17, p<.01). 즉,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어머니의 감독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가족 환경 요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

요 인	전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아버지 양육행동	771	22.42	4.56	431	22.29	4.45	350	22.63	4.67	-1.02
어머니 양육행동	771	24.00	4.17	430	23.75	4.17	351	24.28	4.14	-1.76
아버지 감독	781	14.11	4.30	434	14.02	4.08	352	14.24	4.55	-0.71
어머니 감독	781	17.74	4.15	434	17.05	3.92	352	18.57	4.25	-5.17*
부부 갈등	782	22.23	7.98	434	21.57	7.59	348	23.04	8.38	-2.54*

\*p < .05 \*\*p < .01

부부갈등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21.57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23.0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간의 갈등을 인지하는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54, p<.05$ ).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 간 부부갈등수준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2) 성별에 따른 개인 심리 요인의 차이

개인 심리 요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4〉와 같다. 자이존중감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평균 33.18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32.5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이존중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평균 22.82점, 여자 청소년은 평균 24.1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13, p<.05$ ). 즉,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 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의 영향력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이에 앞서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 간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beta=.19, p<.01$ )과 어머니의 감독( $\beta=-.12, p<.01$ ), 아버지 양육행동( $\beta=-.09, p<.05$ )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09$  이다. 즉,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적대적인 행동을 나타낼수록 청소년들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beta=.19, p<.01$ ), 아버지의 양육행동( $\beta=-.13, p<.05$ )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09$  이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을

〈표-4〉 개인 심리 요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

요 인	전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자이존중감	787	32.88	6.86	436	33.18	7.00	351	32.51	6.67	1.38
우울	791	23.42	8.93	438	22.82	9.24	353	24.16	8.48	-2.13*

\*p < .05



수록, 아버지의 태도가 적대적일수록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감독( $\beta = -.19, p < .01$ ), 우울( $\beta = .17, p < .05$ ), 그리고 어머니의 감독( $\beta = -.14, p < .05$ )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 = .10$  이다. 즉, 여자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높은 우울 수준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김윤정, 1999)와 보통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김현수·김현실, 1997)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성이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조윤정(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독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이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고정자, 2003; 김준호·김은경, 1995)와 일치하는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 환경 요인(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감독, 부부 갈등) 및 개인 심

〈표-5〉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전체		남학생		여학생	
	B	$\beta$	B	$\beta$	B	$\beta$
아버지 양육 행동	-.19	-.09*	-.27	-.13*	-.10	-.05
어머니 양육 행동	.01	.01	-.14	-.06	.17	.08
아버지 감독	-.18	-.08	.01	.00	-.38	-.19**
어머니 감독	-.28	-.12**	-.27	-.11	-.31	-.14*
부부 갈등	-.01	-.01	-.06	-.05	.02	.02
자이존중감	.07	.05	.07	.05	.07	.05
우울	.20	.19**	.20	.19**	.18	.17*
상 수	37.86		41.37		35.71	
R2	.09		.09		.10	
F	10.67**		5.69**		6.55**	

\* $p < .05$  \*\* $p < .01$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박민정·최보가, 2004)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가출충동 정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배문조·전귀연, 2002)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문제행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애정 표현

리 요인(자이존중감, 우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남녀 중학생은 비슷한 정도의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어머니의 감독 수준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간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우울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행동, 아버지의 감독 그리고 자아존중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 어머니의 감독, 아버지의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감독, 우울, 어머니의 감독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높은 우울 수준과 어머니의 감독 소홀 그리고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 경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부모는 자녀에게 지지적인 태도와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자녀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감독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수용적, 애정적이며 친밀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영, 2000). 즉,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경우보다 그 영향력이 크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소홀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1989).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행동보다 영향력이 더 크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긍정적일 때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neewind와 Ruppert(1998)의 연구에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소원함을 나타내지만 딸은

부모 모두에게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 가까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딸은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보다 전통적인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와 감독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Liu & Kaplan, 1999). 따라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버지와 관계회복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즉,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이나 제지가 아닌 부모의 관심과 애정, 특히 아버지의 애정적인 행동이 남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교적 부모와 원만하고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만족감보다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 및 직접적인 감독이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더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행동 척도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문제행동을 구성하는 문항에 있어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 상태와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권영옥·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자(1991).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연구 : 인천시 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1992).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순형(1996).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화 외(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 김현수·김현실(1997). **한국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 의학*, 8(1), 57-69.
- 김혜영(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철·이길홍·민병근(1984). **학생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의대지*, 9(4), 561-582.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1986).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 비행척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 백서**.
- 박민정·최보가(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배문조·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연구: 개인·가족·학교환경·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백연화(1999). **가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1989).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문제연구소.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경향**. 중앙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유한규(199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외(2002).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기초실태조사보고서-**. 한국청 소년개발원.
- 이춘화·윤옥경(2004).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한국 청소년 개발원.
- 정옥분(1998). **청년 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89).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조아미·권두승(1998). **자이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5(3), 27-43.
- 조윤영(2002). **이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내면화, 외현화 증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윤정(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경문(198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진·박성수(1992).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4(1), 55-7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 압력을 중심으로-**.
- Ary, D. V. & Duncan, T. E. (1999). Developmen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2), 141-150.
- Barnes, G. M.,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Beam, M. R. et al, (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5), 343-357.
- Epps, E. G. (1967). Socioeconomic Status, Race, Level of Aspir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A Limited Empirical Test of Merton's Conception of Deviation.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1), 16-27.
- Jang, S. J. (1999). Age-varying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peers on delinquency: A multilevel modeling test of interactional theory. *Criminology*, 37(3), 643-685.
- Liu, X. & Kaplan, H. B. (1999). Expla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mediating mechanisms. *Criminology*, 37(1), 195-215.
- Mann, D. W. (1981). Age and differential predictability of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97-113.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Castalia Publishing Company.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Ritakallio, M. et al, (2005). Brief report: Delinquent behaviour & depression in middle adolescence: A finnish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dolescence*, 28, 155-159.
- Rosenberg, F. R. & Ros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 Siegel, L. J. & Senna, J. J. (1994). *Juvenile delinquency(fifth ed.)*. New York: West Publishing Company.
- Warr, M. (1993). Parents, peers and delinquenc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1), 247-264.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2, 3학년의 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후 최종 791부(남 438명, 여 3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가족 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어머니의 감독 수준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는 부모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우울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행동, 아버지의 감독 그리고 자아존중감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 어머니의 감독, 아버지의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감독, 우울, 어머니의 감독으로 나타났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1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9일